

복음(福音)¹⁾

‘복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 용어가 뜻하는 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선포를 뜻합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인격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은 본디 책이 아니었고, 문학적·역사적 작품도 아니었습니다.²⁾

그리고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네 책에 각각 ‘복음’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은, 네 저자가 저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맺는 고유한 관계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함을 뜻합니다. 곧 서로 조금, 때로는 많이 다른 이 고유한 관계에 따라 네 복음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책상에 앉아 완전한 목록을 갖춘 문헌들을 가지고 나자렛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전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어받아 자기들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작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저기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의식을 하면서, 공동체를 가르치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제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음서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쁜 소식’의 증인이었습니다.

공관복음(共觀福音)

복음은 네 개의 소책자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네 복음서를 통독하다 보면, 넷째 복음서(요한복음)가 앞의 세 복음서와 연관은 있지만, 그것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세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보다 먼저 편집되었다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마르코 복음서는 65~70년쯤에 편집되었고, 마태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는 그보다 15년에서 20년 뒤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집필된 주변 환경은 마르코 복음서와 같지 않으며, 독자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복음서는 관점이 같다고 하여 ‘공관共觀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18세기 말에 ‘공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어떤 작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 이 글은, <한국천주교 구교회의, 주석 성경 신약, 마태오 복음서, 39쪽-41쪽>의 내용에서 발췌·요약 정리했습니다.

2) 150년쯤, 유스티노가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낱말로 ‘복음서’를 가리키게 됩니다. 곧, 우리말에는 ‘복음’과 ‘복음서’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만, 그리스말을 비롯한 서양 언어들에서는 한 용어가 이 둘을 가리킵니다.